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 2012년 7월 5일 (목)

발행인 성영관 편집 김종성

주 소 (700-821) 대구 중구 동산동 234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I 이달의 소식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59) 동물들의 대이동 - 이재만 | 2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38) 낫 뱀 - 이종현 | 4쪽 |
|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24) 이삭! 예수님의 그림자? - 김무현 | 6쪽 |
| 4.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동물 매머드 - 대구지부 | 10쪽 |

인사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생명체를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하여 주신 것을 무한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사람은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었으나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우리는 우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갈등과 분열, 각종 범죄와 폭력, 자살 등 최악이 관영한 오늘을 혼란과 허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의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7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회원 홍 성 택 올림 -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에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저녁식사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7월 19일(목, 오후 7시)에 정기모임을 가집니다. 친교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17일(화)까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12년 7월 19일 오후 7:00

장소: 대해복어

(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맞은 편)

문의: ☎ 070-4095-6420



KACR

대구전시관 오시는 길

070-4095-6420
대구전시관(수도빌딩 2층)

남부경찰서

123노인요양
복지센터

1호선 영대병원역
1번출구

현충로역

명덕시장 네거리

영대병원 네거리

대구 남구 대명5동 207-1번지
수도빌딩 2층 (705-802)

동물들의 대이동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창 8:17-19)

“Bring out with you every living thing of all flesh that is with you, birds and animals and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that they may breed abundantly on the earth, and be fruitful and multiply on the earth.”

So Noah went out, and his sons and his wife and his sons’ wives with him.

Every beast, every creeping thing, and every bird, every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went out by their families from the ark. - Genesis 8:17-19, NASB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에 탔던 동물들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족도 나오고 동물들도 그대로 나왔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동물들을 창조하시던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창 1:22)과 같이 그 동물들에게 명령하시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관영된 죄악으로 인한 심판 이후의 땅에도 창조 때와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들은 아라랏산에서부터 이주하여 나와야 했으며,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은 홍수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황폐되고 변질된 땅이었을 터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 드디어 홍수 후 시대의 동물들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궁금증은 이들이 이주를 했다 하더라도 바다로 나뉘어진 오세아니아나 아메리카 대륙으로는 육지동물이 어떻게 이동했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홍수 동안에는 수많은 화산활동으로 인한 태양 복사에너지의 차단으로 대기는 추웠으며 반면에 물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빠르게 증발했음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빠르게 증발된 수증기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 눈으로 내리게 되었으며, 드러난 육지에 쌓이게 된 것이다. 이는 지구를 덮었던 물을 바람으로 감하게 하시는(8:1) 성경의 묘사에서도 그 상황을 그릴 수 있다.



출처: answersingenesis.org

빙하시대 동안 지표면의 거의 30%가 빙하로 덮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오늘날 모든 지질학자들은 지금은 남극과 북극에만 빙하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넓은 지역이 빙하로 덮여있었다는데 동의한다(위 그림 참조). 그 분포지역은 빙하로 형성된 특이한 지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북미의 예를 들면 이전에는 유타주, 인디애나주까지 빙하가 더 넓게 분포되었던 흔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러한 엄청난 양의 빙하가 육지에 쌓였으므로 해수면은 지금보다 매우 낮았음에 틀림없다(이것은 오늘날 높아지는 기온으로 해수면이 증가하는 이치와 같다).

그리고 창세기 대홍수 직후의 해안선은 육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대륙붕까지 멀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지금은 물로 덮여있지만 당시 대륙붕은 지구가 오늘날의 온도로 돌아올 때까지 육지로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대륙붕을 해안선으로 그려보면 대부분의 대륙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당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물들이 이동하는데 훌륭한 다리(bridge)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대륙에서 아메리카대륙이나 오세아니아 대륙까지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노아의 대홍수직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험난한 환경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곳곳이 이동하는 동물들의 대이동을 그려볼 수 있다.

출처: <http://www.hisark.com> **창조**

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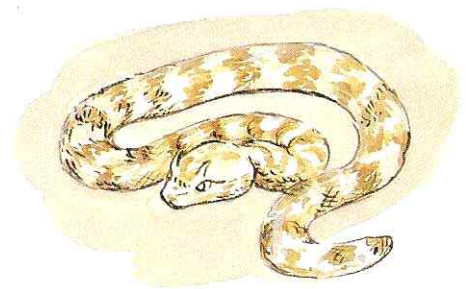
(The Bronze Serpent - 민 21:4-9)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통과하여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했으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며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벌을 주셔서 그들을 광야로 돌려보냈다. 그 후 38년간 그들은 광야를 배회했으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곧이어 아론과 미리암이 죽었다.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다시 불평을 했고, 하나님은 사나운 불뱀의 재앙을 보내셨다. 뱀뱀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살 수 있었다.

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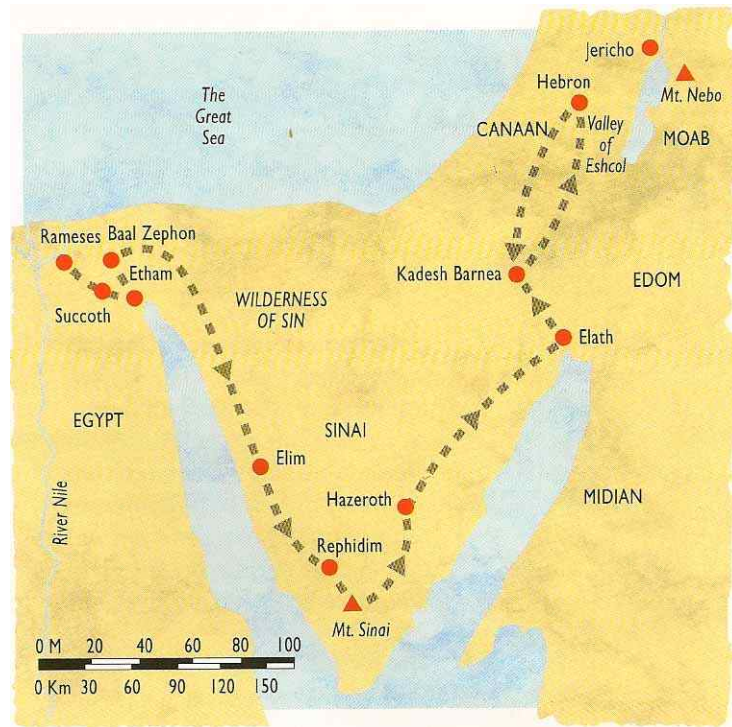
이집트인과 히브리인들 사이에는 뱀을 두려워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까지에는 다양한 종류의 뱀들이 있다. 대부분의 종류는 해가 없지만, 일부는 덥석 물어서 죽음이 이르는 독을 퍼뜨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티벳터벳 걸어갈 때 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모래독사(sand viper; 모래땅에 굴을 파는 각종의 뱀)와 카펫독사(carpet viper)였다. 카펫독사는 길이가 60cm(2피트) 정도 되는데, 모래 속에 몸을 감추고 있다가 경고 없이 갑자기 사람을 공격한다. 그 희생자는 처음에는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데, 이내 몸 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하루나 이틀 지난 후에 실제로 그 사람은 좋아진 것처럼 느끼지만, 곧 죽음에 이른다. 이런 카펫독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벌주시려고 보낸 뱀이 분명하다(민 21:4-9).



<Carpet Viper,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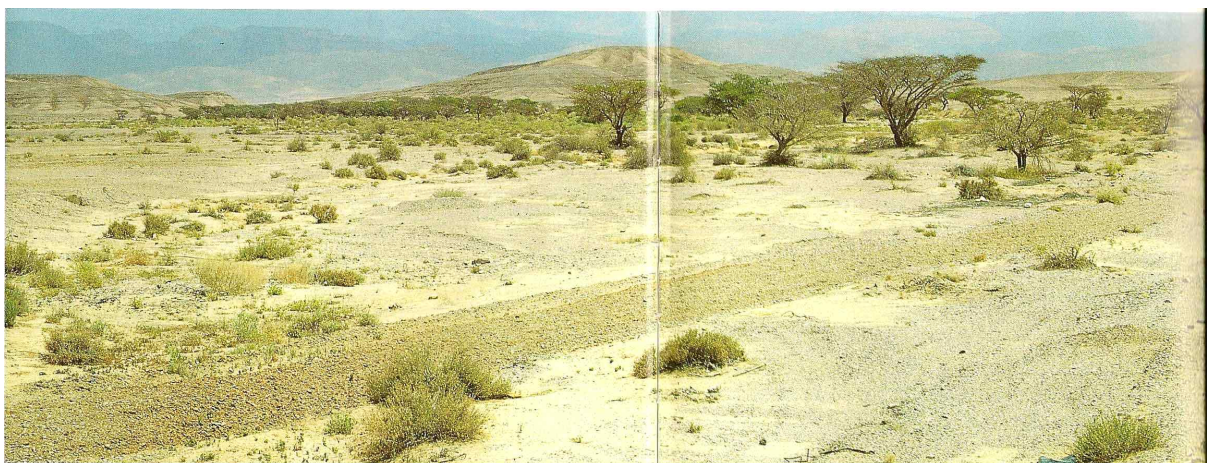
이집트인들은 뱀을 매우 공경한다. 코브라는 그들의 국가적 상징이며 왓젯(Wadjet) 혹은 웃젯(Udjet)이라는 여신으로 숭배한다. 대부분의 파라오들은 그들의 머리장식에 코브라 모양을 붙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간 길>

네게브

이 황량한 사막의 땅은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펼쳐져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에 이 땅은 그들의 영토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산악지역에 정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을 기르고 돌보는 직업을 가졌었다. 후에 그 부근에 교역로가 트여서, 상업이 열렸으며 인구가 증가했다. **참조**



<성경은 정탐꾼들이 네게브(어떤 역본에는 그것을 남쪽의 길이라고 부른다)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을 탐지했다고 말한다. 네게브는 유다 남쪽의 사막 지역이다.>

이삭! 예수님의 그림자?

(7) 이삭! 예수님의 그림자? (Isaac; The Shadow of Jesus?)

창세기 22:1-14을 정독하시고 다음의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다음의 두 가지 모순된 사실로 인하여 매우 혼미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2)

He said, "Take now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Isaac, and go to the land of Moriah, and offer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of which I will tell you." - Genesis 22:2, NASB

Then God said, "Take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and go to the region of Moriah. Sacrifice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I will tell you about." - Gen. 22:2, NIV

- 하나님은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한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God promised the future around Isaac and his descendants.)
-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다.
(God wanted him to sacrifice Isaac.)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창세기 22:5의 “We will worship and we will come back.”는 아브라함의 부활을 믿는 견고한 신앙을 보여줍니다(참조: 히브리서 11:17-19).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 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 창세기 22:5, 새번역

이 내용을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이삭은 언약 안에서 난 아브라함의 독생자임을 유의하십시오.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언약 밖에서 난 자식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까? (2-4절에서 삼일씩이나 가야 하는 특별한 곳, 모리아 산(Mount Moriah)에서 번제를 드리라 함에 유의하십시오. 단지 믿음을 시험하려면 아무데서나 번제를 드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삼일씩이나 가야하는 특정한 곳 모리아산 입니까?) 모리아 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이 때 이삭의 나이는 16-18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청년으로서 힘이 가장 좋을 때지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118세 이었겠지요. 번제단에서 죽기까지(voluntary death) 아무 저항 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지고 가는(6절) 아브라함의 언약의 독생자 이삭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삭을 위해서 대신 준비되고 죽어야 할 수양(male lamb)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요한복음 1:29, 로마서 5:8)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창세기 22:13)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여호와 이레(Yahweh Yireh)”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죄로 죽어야 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것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이가... (로마서 8:32) He(Yahweh)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Romans 8:32)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창세기 22:14)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as it is said to this day, "In the mount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 Genesis 22:14b, NASB

모리아 산은 성전 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에 바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이지요(역대하 3:1).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전 밖 골고다 언덕(해골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당신이 만약 당신의 자녀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아브라함은 그 심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심정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일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예루살렘 성전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6)

"But as for Me, I have installed My King Upon Zion, My holy mountain." - Psalm 2:6, NASB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139:6)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It is too high, I cannot attain to it. - Psalm 139:6, NASB

역대상 21:14-22:1을 정독하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The Angel of the Lord, maybe pre-incarnate Christ or God Himself)에게 여호와께서 “죽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15절)고 명하셨습니다. 이 때 다윗은 회개하며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17절)라고 말합니다. 마치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 간(Gad)을 통하여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오르난에게 얼마의 비싼 대가라도 치를 것이니 그 땅을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팔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이고 함부로 파고 살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환경이나 상황에서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참고: 사무엘하 24장에도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오르난(Ornan)과 사무엘하 24장의 아라우나(Araunah)는 타작마당(threshing floor)의 주인 되는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발음상으로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It is enough; now relax your hand." - 2 Chronicles 21:15, NASB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본 오르난 가족은 기꺼이 땅뿐만 아니라 번제물로 쓸 소와 곡식들도 자발적으로 헌납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리아 산에 번제단을 세울 수 있었던 다윗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죽음의 재앙의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 번제(burnt offering)는 죄의 사함(forgiveness of sin)을, 화목제(fellowship offering)는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또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의 회복: renewal of unbroken covenant relationship)을 상징합니다. 결국 그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의 사역을 가리킵니까?

29절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장막(tabernacle)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2:1에 결국 성전은 모리아 산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집니다.

그 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 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यो, 이 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 이다." - 역대하 22:1, 새번역

Then David said, "This is the house of the LORD God, and this is the altar of burnt offering for Israel." - 2 Chronicles 22:1, NASB

-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구속주로 오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밖(성전 밖) 모리아 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현현으로 드러진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흠향하시고 심판의 칼을 집에 꽂으셨습니다(27절).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며,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독생자 이삭을 굳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독생자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를 구속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희생의 제사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창조**

매머드 (The Mammoth)

혹시 EBS에서 예전에 방영되었던 “한반도의 매머드”라는 영상물을 보셨나요? 뛰어난 컴퓨터그래픽 효과로 마치 과거의 매머드가 살아있었던 때를 찍은 듯한 강렬한 이미지와 더불어 진화론과 오랜 연대설적 종교에 바탕을 둔 감성적 드라마를 많은 이들의 머리에 남겼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머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매머드는 명백히 코끼리처럼 기다란 코와 멋진 상아와 같이 코끼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의 한 종류로 마스토돈, 아프리카코끼리, 아시아코끼리와 더불어 장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매머드를 보면 어깨까지의 높이가 4m를 넘는 콜롬비안 매머드에서 2m 정도 되는 난쟁이 매머드와 그 보다 더 키가 작은 아기 매머드까지 그 크기가 다양합니다.



출처: anwersingenesis.org

그러면, 덩치가 큰 털이 북실북실한 매머드(woolly mammoth)는 하루에 어느 정도의 음식과 물을 섭취했을까요?

물론, 직접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깐 정확히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정도의 덩치를 유지하려면 하루에 180에서 300킬로그램 정도 되는 다육성 음식을 섭취해야 했을 것이고 물도 140에서 200리터 정도는 마셨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대요.

그런데, 만약 매머드가 오늘날과 같이 추운 시베리아와 같은 지역에서 빙하시대에 살았다면, 물은 대개 얼음과 눈의 형태로 1년 중 6개월 이상 동안 있었을 것이고, 식물도 7월이 되어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성한 습지식물을 먹고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습지식물은 매머드에겐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유카기르 매머드, 출처: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하지만, 성경적 입장에서 빙하시대를 이해하게 될 때 창세기 대홍수 후 빙하시대가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노아의 방주에서 내린 코끼리 종류는 수백 년 동안에 수백만에서 수십억 마리로 번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배로 증가되는 연수에 따라 번식한 매머드의 숫자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의 시베리아와 같이 아주 추운 지역에 살았던 매머드와 마스토돈 등은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산사태 등으로 인해 퇴적물 속에 아주 빠르게 묻혀서 잘 보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리인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 같이 신명기 6:6-9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 신명기 6:6-9, 새번역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